

역사논문

## 어거스틴과 칼빈의 교회 성장의 의미 비교

- 알곡과 가라지 비유(마 13:24-30, 36-43) 해석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aning of Church Growth  
in Augustine and Calvin

- Centering on their Interpretations on the Parable of the  
Wheat and the Tares (Mt. 13:24-30, 36-43). -

안인섭 (충신대학교 조교수, 역사신학, Dr. Theol.)

Ahn, In-Sub (Assistant Professor, Chongshin University,  
Church History, Dr. Theol.)

### 한글 초록

본 고는 “부흥”이 아직 신학적 주제로 자리잡기 이전에 어거스틴(354-430)과 칼빈(1509-1564)은 교회 확장에 대해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3장 24-30과 36-43에 등장하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각각 분석한 후에 비교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첫째로 비록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을지라도, 교회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해석한다. 둘째 그러나 어거스틴은 동시에 악도 이 세상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셋째, 어거스틴은 교회는 북아프리카와 같은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라는 세계 선교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어거스틴은 교회 부흥의 종말론적인 개념을 강조한다.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 질 때는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이다. 다

셋째, 그러므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상호 인내와 사랑과 관용을 보이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한편 칼빈의 해석은, 일면 어거스틴과 유사한 점도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부단히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상에서 성장하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불완전함 때문에 교회를 분리하지 말고 연합하고 인내할 것을 강조하는 면에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사상을 반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어거스틴과는 색다른 강조점도 보여주고 있다. 어거스틴은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한 지역, 즉 북아프리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세계 선교의 비전에 무게 중심을 싣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알곡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거듭난 믿는 자들이라고 보면서, 그런 신자들이 속한 교회의 확산은 성령의 중생의 사역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교회 확산에 대해서 신학적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칼빈에게서 두드러지는 해석이다.

교회의 확산과 관련하여 어거스틴과 칼빈의 강조점이 다른 이유는 어거스틴과 칼빈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회의 성장 혹은 확산에 대한 관점도,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신학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해석될 때 보다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한국 교회도 한국 교회의 역사적 신학적 토대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미래의 교회 부흥을 전망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교회 부흥, 교회 성장, 어거스틴, 칼빈, 성경해석

## Abstract

This article compares the thoughts about “Church growth” in the writings of Augustine(354-430) and Calvin(1509-1564), whose lifetime was before the rise of the theological issue, “Church revival,” by analyzing their interpretations on the parable of the wheat and the tares (Mt. 13: 24-3, 36-43).

According to Augustine, just as the chaff and the good grain are mixed in the same fields, so also are the good and wicked people in the Church. Even though the Church might muddle through the bitter of her life in this world, the Church will grow until the last day, as the wheat will do so until the harvest. The evil in this world will also be expanded, just as the case of the tares. Because the Church is a mixed company, Augustine advocated Church members’ patience and a tolerant attitude toward everyone with the eschatological vision.

Calvin insisted on the eschatological aspect of this parable, just as Augustine did. Therefore, for Calvin, the planned time will finally come, when the Lord will restore good order in the world and the evil will be eliminated.

On the other hand, in Calvin’s explanation of the parable of tares and wheat, the emphasis in Jesus’ parable was on separation, unlike Augustine’s interpretation. Calvin encouraged the people not to be despondent over the co-existence of the good and the wicked in the Church. For Calvin the wheat means the Christians in the Church who are regenerated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grace. Calvin’s focus on the identity of the wheat wa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is is Calvin’s distinguishable point from Augustine. (\*)

**Key Words** : Church Revival, Church Growth, Augustine, Calvin, Bible Interpretation

## 1. 들어가는 글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을 즈음하여 교회 현장에서 부흥에 대한 갈망이 고조되고 있는 현대 교회의 긴요한 필요를 전제하면서, 본 논문은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두 신학자인 어거스틴(Augustine, 354-430)과 칼빈(John Calvin, 1509-1564)을 택해서 그들의 신학적 가르침을 경청하고자 한다.

4-5세기 어거스틴(Augustine, 354-430)의 시대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수용함으로써 교회가 전 로마 세계에 확산되었지만, 어거스틴 자신의 사역지였던 북아프리카에서는 도나티스트 운동(Donatist Movement)이 흥왕하여 두 개의 경쟁적인 교회가 각각 발전하고 있었다.<sup>1</sup> 그런데 어거스틴의 생애 말기는 게르만족이 로마 세계로 침입해 들어오면서 로마 제국이 붕괴하고 있었던 역사적 대 전환기였다. 따라서 당시는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었다.<sup>2</sup>

한편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 활동했던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는 하나의 기독교 세계였던 중세 유럽 속에서 역동적인 개신교의 교회들이 형성되면서 근대 세계로 접어드는 역사적 과도기였다. 따라서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대는 자신의 신학적 정체성의 확립과 그 젊은 교회의 확장이라는 매우 긴요한 시대적 요구들이 있었던 시기였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

<sup>1</sup> W.H.C. Frend, "Donatus 'paene totam Africam decepit.' How?..*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1997) vol. 43, 611, 627. 기존의 보편 교회와 도나티스트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W.H.C. Frend, *The Donatist Church: A Movement of Protest in Roman North Af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2/1985).

<sup>2</sup> 이런 역사적 문맥에서 어거스틴의 탁월한 저서인 신국론이 기록되었다. Augustine, *De Civitate Dei (DCD.) (=City of God)*. (ed.) B. Dombart and A. Kalb. CCL 47-48. Turnhout: Brepols, 1955. 어거스틴 당시로 제국 기독교와 관계에 대해서 다음 참조하라. R.A. Markus, *Saeculum: History and society in the Theology of St. August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사실 “부흥”이 본격적인 신학적 주제가 된 것은 웨슬레의 부흥운동과, 미국의 1,2차 대각성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회의 역사를 일견해 보면 부흥은 어느 한 시대에 제한된 일시적인 역사적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의 4-5세기와 칼빈의 16세기는 아직 “부흥”이 신학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 이전이었다. 그러나 어거스틴과 칼빈은 자신들이 활동했던 혼란하고도 역동적인 시대 속에서 성경적인 교회를 확립하고 “확장”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신학을 진기했던 신학자들 이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어거스틴과 칼빈의 “교회 확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는 로마 제국의 문맥 속에서 어거스틴은 교회 확장에 대해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고찰하게 될 것이다. 또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의 작품들 속에는 교회의 성장이 어떤 내재적 혹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본 소논문은 마지막으로 교회의 성장에 대한 어거스틴과 칼빈의 사상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부흥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주제를 역사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상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본 논문이 취한 방법론은 두 신학자의 성경해석학을 통해 드러나는 그들의 사상을 비교하는 것이다.<sup>3</sup> 칼빈의 전체적 사상과 성격과 인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기독교강요와 성경 주석 및 설교문과 편지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야만 할 것이다. 특

---

<sup>3</sup> 어거스틴과 칼빈의 신학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론은 다음의 줄고에 제시되어 있다. 안인섭, “칼빈과 어거스틴: 그 비교 연구의 한 방법론과 실제,” 『칼빈연구』 제2집 (2005), 7-28. 한편, 실제 어거스틴과 칼빈의 성경 해석 연구를 통해 두 신학자의 사상을 비교한 한 예로서 다음을 들 수 있다. 안인섭, “로마서 13:1-7 해석에 나타난 어거스틴과 칼빈의 교회와 국가 사상,” 『신학지남』 제71권 4집 (2004년 겨울호), 162-189

히 칼빈의 평생의 신학적 작업은 기독교강요와 성경 주석을 저술하는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4</sup> 따라서 칼빈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접근 방법으로서 칼빈의 성경해석학 연구를 꼽을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칼빈의 주석은 막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sup>5</sup> 그의 기독교 강요도 결국 그의 성경 해석 위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이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그의 성경주석과 기독교강요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연구한다면 칼빈의 사상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칼빈과는 달리 계획적인 주석을 완성했다기 보다는 그 시대의 교회의 현장에 주어지는 문제들에 해답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저술 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 저작들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성경 해석들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세상 속에서 부흥 혹은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어거스틴과 칼빈의 성경 해석을 비교하기 위해서 본 고에서는 마태복음 13장 24-30과 36-43에 등장하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선택하여, 이 두 신학자들의 해석을 각각 분석한 후에 비교하려고 한다.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함축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 세대(saeculum)에 임했지만, 인간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 결국은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비유에서 “곡식”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의미한다. 따라서 마치 곡식이 밭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과 같이, 교회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Regnum Dei)를 받으면서 계속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해석되는 가라지이다. 원수에

<sup>4</sup> T.H.L. Parker,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Edinburgh: T&T Clark, 1993), 6-7.

<sup>5</sup> H. Selderhuis, *God in het midden: Calvins theologie van de Psalmen* (Kampen: Kok, 2000), 23-48

의해서 뿌려진 그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밭에서 계속 자라듯이 이 세상에는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성장하되, 동시에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함께 성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마침내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교회와 악인들은 분리되어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진행되는 교회의 성장과 관련해서, 어거스틴과 칼빈은 이 가라지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비교 연구해 본다면, 그들의 독특한 특징들이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 2. 어거스틴의 해석

### 2.1. Of the Moral of the Catholic Church 34.76.<sup>6</sup> (338년)<sup>7</sup>

388년에 기록되었던 어거스틴의 “보편교회의 도덕에 관하여”가 처음으로 마태복음 13:30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편지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보편 교회에 대한 비난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악인은 악한 자와 함께 그들의 옛 악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 더 악하게 될 것이지만, 가라지 비유의 경우처럼, 주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그대로 남겨지도록 허락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거스틴은 좋은 씨와 나쁜 씨가 밭에서 함께 자라듯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수 때가 반드시 임하듯

<sup>6</sup> PL 32. 1342.

<sup>7</sup> 본 논문은 어거스틴의 작품들이 기록된 연대를 위하여 다음의 책들에 참고하였다. P. Brown, *Augustine of Hippo*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2000). A.D. Fitzgerald, *Augustine through the Ages*.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이 종말에 가서 교회와 악한 자들은 분리될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해석하고 있다.<sup>8</sup>

## 2.2. Letter 43.8.21.<sup>9</sup> (397년)

어거스틴은 397년에 기록된 그의 편지에서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간다. 종말의 시기까지 교회도 성장하며 악인들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계속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흥하는 교회 안에도 악인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관용하는 태도를 견지할 것을 밝히고 있다.<sup>10</sup>

<sup>8</sup> Augustine, *Of the Morals of the Catholic Church*, 37, 76. "Those, again, who with wicked will persist in their old vices, or even add to them others still worse, are indeed allowed to remain in the field of the Lord, and to grow along with the good seed; but the time for separating the tares will come"

<sup>9</sup> *CSEL* 34.2, pp. 102-103.

<sup>10</sup> Augustine, *Ep.* 43, 8, 21. *CSEL* 34.2, pp. 102-103. "et ipsi nobis obiciunt uel falsa crimina mortuorum uel etiam si uera tamen aliena non intellegentes in his, quae nos eis obicimus, omnes illos teneri, in his uero, quae nobis obiciunt, paleam uel zizania messis dominicae reprehendi, ad frumenta autem crimen non pertinere neque considerantes, quia, quibus mali placent in unitate, ipsi communicant malis, quibus autem displicent et eos emendare non-possunt neque ante tempus messis audent zizania eradicare, ne simul eradicent et triticum, non factis eorum sed altari Christi communicant, ita ut non solum non ab eis maculentur. sed etiam diuinis uerbis laudari praedicarique mereantur, quoniam, ne nomen Christi per horribilia schismata blasphemetur, pro bono unitatis tolerant, quod pro bono aequitatis oderunt.



### 2.3.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on 22.72.<sup>11</sup> (397-398년)

어거스틴은 가라지의 비유를 마니교도 파우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의 22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는 모두 추수의 때까지 자라갈 것이라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거스틴의 해석의 초점은 이 세상에서는 곡식도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교회와 악한 자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 구별없이 자라날 것이며, 결국 그 성장의 끝을 구별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다.<sup>12</sup> 따라서 어거스틴은 교회는 세상의 악이 만연할 지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말하면서 결국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확산을 인정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 2.4. Sermons on New Testament Lessons 38.21.<sup>13</sup> (약 400)

### 2.5. Sermons on New Testament Lessons 38.22.<sup>14</sup> (약 400)

어거스틴은 신약 교훈에 대한 설교문에서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사용해서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 교회의 확산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다. 어거스틴 당시 도나티스트 운동은 북아프리카에서 팽창했던 자신들의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가라지 비유를 사용하면서 도나티스트를 반박한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아프리카뿐 아니라 전 세계가 받으며, 이 세상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성장한다.

<sup>11</sup> *CSEL* 25.1, pp. 669-670.

<sup>12</sup> Augustine,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on*, 22. 72. "Thus the true and good God alone knows when, to whom, and by whom to order anything, or to permit anything."

<sup>13</sup> *PL* 38, pp. 550-551. *Sermon* 88).

<sup>14</sup> *PL* 38, pp. 551-552. *Sermon* 88).

비록 좋은 곡식은 가라지 보다 그 성장이 늦어 보이지만, 그러나 곡식은 줄어들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런 문맥에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성령의 연합 안에서 자비로운 태도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sup>15</sup>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북아프리카 한 지역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안목에서 보아야 하며, 이에 근거할 때 하나님의 교회의 자녀들인 알곡들은 비록 더딜지라도 줄어들지 않고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 2.6. On Baptism, against the Donatist 4.9.14.<sup>16</sup> (400년)

어거스틴은 특히 도나티스트 운동에 대해서 가라지 비유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도나티스트에 대항하여 어거스틴은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존재하며,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혜택이 곡식과 가라지 모두에게 주어지듯이, 비록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의 가라지들도 성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17</sup> 따라서 어거스틴의 논법을 따르면 교

<sup>15</sup> Augustine, *Sermons on New Testament Lesson*, 38.21. *PL* 38. pp. 552-553. "Qui autem deseruit unitatem, violat charitatem: et quisquis violat charitatem, quodlibet magnum habeat, ipse nihil est. Si linguis hominum loquatur et Angelorum, si sciat omnia sacramenta, si habeat omnem fidem, ut montes transferat, si distribuatur omnia sua pauperibus, si corpus suum tradat, ut ardeat, charitatem autem non habeat: nihil ei prodest, universa inutiliter habet, qui unum illud, quo universis utatur, non habet. Amplectamur itaque charitatem, studentes servare unitatem spiritus in vinculo pacis."

<sup>16</sup> *CSEL* 51. 237.

<sup>17</sup> Augustine, *On Baptism against the Donatists*, 4. 9. 13. *CSEL* 51. pp. 238. "de sacramento autem cum quaeritur, non utrum habeant aliquid frumenti zizania quaeritur, sed utrum habeant aliquid caeli, et exterioribus enim et interioribus zizaniis cum ipso tritico est pluuia communis, quae caelestis et dulcis est ipsa, etiamsi ex ea zizania

회가 부흥할 때 교회 안에 많은 가라지도 함께 공존할 수 있다. 비록 현세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라지와 알곡은 전적으로 구별되는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어거스틴의 초점은 교회 안에 참된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구성원들의 숫자가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며, 결국 교회의 성장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2.7. Letter 53.3.6.<sup>18</sup> (400년)

어거스틴은 그의 편지 53에서 가라지 비유를 사용하면서 교회의 확장, 즉 부흥에 대한 그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좋은 곡식은 추수의 시기까지 자라날 것이다. 즉 종말의 때까지 교회는 전 세계에 퍼질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강조하고 있다.<sup>19</sup>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자의 아들들이 섞여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교회는 종말의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 2.8. The Letters of Petilian, The Donatist 2.79.174.<sup>20</sup> (401/405년)

---

steriliter crescunt. sic et euangelicum Christi sacramentum diuinum et suaue est neque propter eorum sterilitatem quos etiam fortis conpluit inprobandum.” 어거스틴은 그의 “신국론”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와 유사한 비유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을 보라. Augustine, *City of God*, 1.8

<sup>18</sup> *CSEL* 34.2. 156-157.

<sup>19</sup> “... the Lord’s wheat, which must grow until the end of the world throughout the whole field, i.e. the whole earth...”

<sup>20</sup> *CSEL* 52. 108.

어거스틴은 도나티스트인 페틸리안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마태복음 13장을 인용하면서 그의 종말론적인 사상을 피력하고 있다. 밭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에서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게 된다. 이 두 가지는 계속 성장하되 추수 때까지 가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은 악은 종말의 때까지 이 세상에서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사랑 안에서 서로 인내하고 평안의 줄 안에서 성령의 연합을 지켜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비록 세상에 악이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종말의 때가 되면 교회에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다. 따라서, 어거스틴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종말의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며, 그 부흥의 과정에서 교회가 지녀야 할 태도는 사랑 안에서 서로 인내하는 것이며, 평안의 줄 안에서 성령의 연합을 지키는 것이다.<sup>21</sup> 이것이 바로 이 편지에서 어거스틴이 교회의 부흥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 2.9. The Letters of Petilian, The Donatist 3.2.3.<sup>22</sup> (401/405년)

이 편지에서 어거스틴은 다시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혼합되어 있을 것이며, 종말의 때에 가서야 분리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어거스틴은 교회가 성장하는 그 지역이 도나티스트 교회가 활동하고

<sup>21</sup> Augustine, *The Letters of Petilian, The Donatist*, 2, 79, 173. CSEL 52108. "… ne propter malos uentilabro ultimo separandos nunc a bonorum societate pacis uinculum abrumperes, foras uento leuitatis excussus paleae crimen obicis tritico et, quae fingis de malis, per contagionem ualere et in bonis affirmas et, cum dominus dixerit: ager est hic mundus, messis autem est finis saeculi, cum de frumentis et zizaniis dixisset: sinite utraque crescere usque ad messem …".

<sup>22</sup> CSEL 52. 162-164.

있었던 북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임을 언급하고 있다.<sup>23</sup> 즉 교회 부흥의 종말론적 성격과 세계 선교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2.10. Letter 76.2.<sup>24</sup> (404년)

어거스틴의 이 편지는 특별히 북아프리카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종말론적이고 선교적인 관점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어거스틴은 마태복음 13장을 해석하는 북아프리카의 도나티스트 교회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다. 도나티스트 교회에 의하면 좋은 씨가 뿌려진 밭은 아프리카이며 추수의 때는 도나투스의 때이며 추수꾼은 씨킴셀리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런 해석을 반박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밭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세상이며, 추수의 때는 도나투스의 때가 아니라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씨킴셀리온이 아니라 천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마태복음 13장을 해석하면서 교회는 북아프리카를 넘어 세계에서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며, 종말의 시기까지 그렇게 되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 2.11. Letter 93.9.31.<sup>25</sup> (408년)

어거스틴의 편지 93 역시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사용하면서 교회의 확장을 종말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밭은 세상이며 추수는 종말의 때이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가라지 비유 해석에 의하면, 북아프리카에 도

---

<sup>23</sup> "For the field is the world, - not only Africa; and the harvest is the end of the world, - not the era of Donatus."

<sup>24</sup> *CSEL* 34.2. 324-28.

<sup>25</sup> *CSEL* 34.2. 445-96.

나티스트의 교회가 확산되는 것이 종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에게 알곡 즉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 성장하는 것이 역사의 종말이다.<sup>26</sup>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교회의 전 세계로의 확산과 부흥을 종말론적인 비전으로 바라보았다.

2.12. Sermons on New Testament Lessons 23.1.<sup>27</sup> (410 혹은 426-30년)

2.13. Sermons on New Testament Lessons 23.4.<sup>28</sup> (410 혹은 426-30년)

약 410년 혹은 426년에서 30년 경에 기록되었던 어거스틴의 신약 설교문에 다시 마태복음 13절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등장한다. 어거스틴은 밭에 좋은 씨와 나쁜 씨가 함께 자라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 세상에서 비록 악이 범람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악인이 변화되게 하고 선한 자들을 따라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sup>29</sup> 따라서 선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들을 인내하라는 것이다.<sup>30</sup>

<sup>26</sup> Letter 93, 9, 31. "... the Church, which is increasing throughout all nations, has been preserved as the Lord's wheat, and shall be preserved unto the end, yea, until all nations, even the barbarous tribes, are withint its embrace. ... for the filed is the world, and the harvest is the end of time."

<sup>27</sup> PL 38, p. 470. (=Sermon 73).

<sup>28</sup> PL 38, pp. 471-472. (=Sermon 73).

<sup>29</sup> Augustine, *Sermon 23* (=Sermons on New-Testament Lessons) 4. "...let the bad change themselves, and imitate the good."

<sup>30</sup> Augustine, *Sermon 23* (=Sermons on New-Testament Lessons) 4. "Let the

## 2.14. On Patience 8.<sup>31</sup> (415-417년)

이 글에서 어거스틴은 부흥하고 확산되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도들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가라지들 즉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함께 섞여서 지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종말의 시기까지 인내하면서 지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문맥에서 어거스틴은 다시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어거스틴이 그의 저작들에서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놓은 부분들을 조사해 볼 때, 어거스틴은 두 가지 점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교회는 결국 종말의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인데, 장차 분리 되어질 두 종류의 사람의 그룹들이 이 세상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에 근거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 즉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성장할 때에, 이 세상의 시민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칼빈

칼빈의 공관복음 주석은 1555년에 출판되었는데, 마틴 부써(M. Bucer)가 그랬듯이, 마태복음의 순서에 근거하여 그 구조속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주석해 나갔다.<sup>32</sup> 본 소논문에서는 칼빈의 마태복음 13장 주석 자

---

good tolerate the bad”

<sup>31</sup> CSEL 41. 669.

<sup>32</sup> W. Greef, *The Writings of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100-101.

체뿐 아니라, 다른 성경주석들과 기독교강요 중에서 이 가라지 비유가 나타나는 곳을 찾아내서 그 부분들에 드러나는 칼빈의 해석을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에 근거해서, 마지막에는 어거스틴과 칼빈의 사상을 비교하도록 할 것이다.

### 3.1. 칼빈의 주석에 나타난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 해석

#### 3.1.1. Commentary on the Prophet Isaiah (11:13) (1551년)<sup>33</sup>

칼빈의 이사야 주석은 1551년에 나타나는데, 이사야 11장 13절을 해석하면서 칼빈은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인용하고 있다. 주께서는 교회 안팎의 평화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로 가장 바람직한 축복(maximum atque imprimis optandum beneficium est)이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이 지상 교회의 평화는 한번도 주어진 적이 없었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실상 칼빈이 보기에 교회 외부를 살펴보면,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되자마자, 전쟁과 소요상태와 무시무시한 박해들이 뒤따랐으며, 모든 세상이 혼란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35</sup>

또한 교회 안을 고찰해 보아도 언제 교회의 평화가 있었는지를 칼빈은

<sup>33</sup> CO. 36. (=Comm. Is. 11:13), 247.

<sup>34</sup> CO. 36. (=Comm. Is. 11:13), 247. "In summa, Dominus hic externam et internam pacem promittit, quod maximum atque imprimis optandum beneficium est."

<sup>35</sup> CO. 36. (=Comm. Is. 11:13), 247. Obiiciet vero quispiam, hoc nunquam fuisse impletum, imo prorsus contraria evenisse. Nam simul atque evangelium exortum est, varia bella, tumultus et persecutiones horrendae sequutae sunt, totusque fere orbis commotus et concussus est.



반문하고 있다. 바로 이 문맥에서 칼빈은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sup>36</sup>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사탄은 가라지를 심어놓고 혼란을 야기시켜 왔다. 따라서 결국 교회의 품 안에서 교회의 원수들이 자라났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을 제시한다.<sup>37</sup> 칼빈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맞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작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비록 교회가 그 안과 밖에서 원수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교회의 모든 원수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사야 11장에서 사용된 마태복음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확장과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있다는 비전을 강력하게 제시한다.<sup>38</sup> 칼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결케 된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들인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성취이다.

따라서 칼빈은,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진직”의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복하고 영원한 평화를 얻기까지, 교회의 안과 밖에서 열심히 싸워 나가자고 촉구하고 있다.<sup>39</sup>

---

<sup>36</sup> CO. 36. (=Comm. Is. 11:13), 247. Intus vero quam pacem obtinuit ecclesia? Satan inter ipsos Christianos suis zizaniis horribiles turbas concitavit, ut nulli fuerint infensiores et perniciosiores hostes quam qui in ipsis ecclesiae intestinis fuerunt educati.

<sup>37</sup> CO. 36. (=Comm. Is. 11:13), 247. Respondeo, prophetam hic universum Christi regnum, non unam aetatem aut saeculum duntaxat aliquod complecti. Hic enim regni Christi primitias tantum gustamus : deinde ita hostibus internis et externis vexatur ecclesia, ut nihilominus eam Dominus tueatur et conservet, omnibusque hostibus praevaleat.

<sup>38</sup> CO. 36. (=Comm. Is. 11:13), 247. Ad haec proprie veris et legitimis Abrahae filiis convenit hoc vaticinium, quos Dominus cruce et exsilio purgatos oblivisci coegit ambitionis et invidiae : sicuti inter omnes qui mansuefacti sunt in Christi schola cessat gloriae cupiditas. Ita iam aliqua ex parte prestitum est, et quotidie praestatur quod hic promittit Isaias

<sup>39</sup> CO. 36. (=Comm. Is. 11:13), 247. Sed pergendum est in istis exercitiis,

요약하자면, 칼빈이 이사야 11장 주석에서 사용한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의 해석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 안에 존재하면서 안과 밖의 시련과 도전을 받아왔지만, 결국은 종말론적인 성취의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라는 칼빈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

### 3.1.2.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Mt 13:24-30, 36-43) (1555년)<sup>40</sup>

칼빈은 1555년에 나타난 그의 공관복음 주석에서 재세례파에 반대해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철폐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sup>41</sup> 칼빈의 강조점은 율법과 선지자의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칼빈은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 해석에서, 먼저 성령으로 중생한 성도라 하더라도 육신의 약점이 있게 마련이며,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이 공존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칼빈은 이어서 이 가라지 비유의 근본 의도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는, 그 내부에 선한 자들과 위선적인 자들이 섞여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 순례의 여정 속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42</sup>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의 가라지 비유 해석의 강조점은 어거스틴의 그것과 일맥 상통한다.

칼빈에 의하면 이 비유에서 받은 세상이라기 보다는 교회를 의미하며,

---

et assidue intus et foris pugnandum, donec consequamur aeternam illam pacem qua beati in regno Dei perfruemur.

<sup>40</sup> CO. 45. 367-371.

<sup>41</sup> W. Greef. *The Writings of Calvin*, pp. 100-101.

<sup>42</sup> CO. 45. (=Comm. Mat. 13:24-43), 367-371.

믿는 자들은 그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다. 이 부분에서 칼빈의 해석은 어거스틴과 다소 구별되는데 어거스틴은 밭을 세상이라고 보면서, 그 밭에 뿌려진 곡식을 교회로 보는 측면이 강했다. 칼빈은 그의 제유법 (synecdoche)에 따른 해석에 의해서 이 교회가 곧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서 주님께서 온 세상에 생명의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은 본격적으로 가라지 비유를 해석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확산에 초점을 두었다면, 칼빈은 순결한 신앙에 영향을 주는 불경건한 오류들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청하고 있다.<sup>43</sup> 칼빈은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본래 창조의 때부터 좋은 씨가 된 것은 아니며, 타락한 이후 원죄 하에 놓여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중생시키심으로 좋은 씨가 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Sicuti ergo Deus electos suos, qui originali peccato infecti sunt, non creatione bonum semen facit, sed eos spiritus sui gratia regenerat [굵은 밑줄은 필자 강조], ita diabolus non creat malos homines, sed a Deo creatos depravat, et in agrum Domini inserit ad vitiandum purum semen.<sup>44</sup>

이처럼 칼빈은 알곡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거듭난 믿는 자들이라고 보면서, 그들이 속한 교회의 성장 및 확산을 인간과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성령의 중생의 사역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부흥과 관련하여 어거스틴과 비교해 볼 때 칼빈에게서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해석이다.

한편 칼빈은 밭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

<sup>43</sup> CO. 45. (=Comm. Mat. 13:24-43), 368.

<sup>44</sup> CO. 45. (=Comm. Mt. 13:24-43), 368.

고 있다. 즉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더불어서 악한 자들도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마귀로 돌림으로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sup>45</sup> 요컨대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중생의 사역을 통해서 부흥하게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 악한 자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칼빈은 한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교회가 한편으로 부흥을 하면서도 악이 여전히 그 안에 잔존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칼빈의 강조점은, 악을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Est quidem haec valde molesta conditio, quod reprobis oneratur  
ecclesia usque ad finem mundi: hoc tamen tempus nobis ad patientiam  
ideo Christus praescribit, ne vana spe nos lactemus.*<sup>46</sup>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그 안과 밖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은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어거스틴의 해석과 일치하고 있다.

칼빈은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가면서, 이 문맥에서 교회 성장의 종말론적 성격을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칼빈에 의하면, 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러움에 싸여 있거나 숨겨져 있지만, “그 때(Tunc)”에는 맑은 태양이 비취듯이 선명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sup>47</sup> 칼빈의 강조점은 역사적인 종말의 날이 올 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장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다.<sup>48</sup>

<sup>45</sup> *CO.* 45. (=Comm. *Mt.* 13:24-43), 368-369.

<sup>46</sup> *CO.* 45. (=Comm. *Mt.* 13:39), 369.

<sup>47</sup> *CO.* 45. (=Comm. *Mt.* 13:43), 371. “Insignis consolatio, quod filii Dei qui nunc vel squalore obsiti iacent, vel latent nullo in pretio, vel etiam probis cooperti sunt, tunc quasi sereno coelo, et discussis omnibus nebulis, vere et ad liquidum semel conspicui fulgebunt.

결론적으로 칼빈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제시하면서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따치고 있다.

Regnum patris quasi piorum haereditas terrae opponitur, ut se in hac peregrinari [필자 강조] meminerint, atque ita in coelum aspirent.<sup>48</sup>

칼빈에 의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peregrinari)”이며, 그들은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가라지 비유 해석을 통한 교회 부흥 혹은 성장에 대한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때 그 안과 밖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한 중생의 사인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시점까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 2.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 해석

### 2.1. *Institutes*, 4.1.16.

칼빈은 완전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문맥에서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곳에서 칼빈은 동시에 어거스틴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자만심과 교만에서 기인하는 잘못된

---

<sup>48</sup> CO. 45. (=Comm. Mt. 13:43). 371. “Verum quidem est, nullis promitti futuram gloriam, nisi in quibus iam eluceat imago Dei, et qui in eam per continuos gloriae gradus transformantur :”

<sup>49</sup> CO. 45. (=Comm. Mt. 13:43). 371.

열정 때문에 교회를 분열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유념하라고 충고한 내용을 들어서 훈계하고 있다. 칼빈은 어거스틴을 사용하여, 경건한 자들은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 최대한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되 시정할 수 없는 것은 인내함과 사랑으로 애통하라고 말했던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동시에 칼빈은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인용하면서,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것을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성교의 교제를 이루어 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sup>50</sup>

## 2.2. *Institutes*, 4.1.19.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의 1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가라지 비유를 간단하게 사용하고 있다. 칼빈은 먼저 키프리안(Cyprian)을 인용하여, 교회 안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모습은 교회의 분리를 정당화해 주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sup>51</sup>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라지를 함부로 갈라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52</sup>

## 2.3. *Institutes*, 4.12.11.

<sup>50</sup> *CO*. 2. (= *Inst.* 4.1.16.), 359 *Piis autem et placidis hominibus hoc consilium dat, ut misericorditer corripiant quod possunt; quod non possunt, patienter ferant, et cum dilectione gemant atque lugeant: donec aut emendet Deus ac corrigat. aut in messe eradicet zizania, et paleas ventilet.*”

<sup>51</sup> *CO*. 2. (= *Inst.* 4.1.19.), 761. “*Bene ergo Cyprianus: etsi videntur, inquit, in ecclesia zizania, aut vasa impura, non est tamen cur ipsi de ecclesia recedamus....*”

<sup>52</sup> *CO*. 2. (= *Inst.* 4.1.19.). 761. “*nec quisquam sibi quod proprium est soli filio vendidit, ut ad aream ventilandam et purgandam paleam sufficiat, zizaniaque omnia humano iudicio segreganda :*”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가 사용된 곳은 4.12.11이다. 16세기 역사 속에서 급진적인 교회 변형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칼빈은 어거스틴과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사용해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칼빈은 먼저 신중하지 못하게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곡식을 뽑을 수 있다고 경계한 어거스틴과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인용하면서, 키프리안도 말하듯이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인자한 태도로 시정하지만 시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인내하면서 슬퍼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sup>53</sup>

#### 4. 비교 및 나오는 글

어거스틴의 마태복음 13장의 해석을 교회 부흥과 관련해서 크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지라도, 교회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나 어거스틴은 동시에 악도 이 세상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 교회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셋째, 어거스틴은 교회는 북아프리카와 같은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라는 세계 선교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어거스틴은 교회 부흥의 종말론적인 개념을 강조한다.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 질 때는 이 세

---

<sup>53</sup> CO. 2. (=Inst. 4.12.11.), 912. "Tantum id fieri vult adhibita prudentia quam Dominus quoque requirit. ne, dum eradicantur zizania, frumenta laedantur. Inde colligit ex Cypriano: misericorditer igitur corrigiat homo quod potest: quod autem non potest, patienter ferat, et cum dilectione gemat atque lugeat."

상의 종말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그러므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상호 인내와 사랑과 관용을 보이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어거스틴은 지상의 교회는 혼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관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가라지와 알곡이 동일한 밭에 섞여 있는 것과 같이,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보편 교회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밭에 존재하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마치 가라지와 곡식이 추수 때까지 공존하는 것과 같이,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은 종말의 때까지 보편 교회 안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인내하고 관용하고 사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칼빈의 해석은, 일면 어거스틴과 유사한 점도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칼빈의 독특한 신학이 드러나기도 한다.

먼저 어거스틴과 유사한 면을 고찰해 보자면, 칼빈도 어거스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부단히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

마치 어거스틴의 교회론이 보여주듯이, 칼빈 또한 그 종말론적인 목적지를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지상의 교회는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에서 성장하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불완전함 때문에 교회를 분리하지 말고 연합할 것을 강조하는 면에서 칼빈은 어거스틴과 같은 라인에 서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 안에서 종말의 시점까지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서로 관용해야 할 것을 강조할 때 칼빈은 또한 어거스틴의 사상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칼빈은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통한 교회 부흥 혹은 확산에 대한 관점에서 어거스틴과는 색다른 강조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어거스틴은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한 지역, 즉 북아프리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세계 선교의 비전에 무게 중심을 싣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알곡을 하나님께 의탁한 밭에 거둔다는 사역이라고 보면서, 그런 신자들이 속한 교회의 확산은 성령의 증생의 사역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교회 확산에 대해서 신학적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어거스틴과 비교해 볼 때 칼빈에게서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해석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교회의 확산과 관련하여 어거스틴과 칼빈의 강조점이 다른지 그 이유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어거스틴과 칼빈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의 차이를 그 이유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어거스틴 당시 그의 생애 전반기에는 그가 살던 북아프리카에서 도나티스트 운동은 부흥하고 있었지만, 어거스틴의 로마 교회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었다. 또한 그의 생애 후반기에는 당시 알라리를 비롯한 게트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로마 교회의 후견자였던 로마 제국 자체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었다. 이런 역사적 급변기를 겪으면서 북아프리카의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어거스틴은, 교회의 확산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교회의 확산은 북아프리카나 로마 제국의 영토라는 한정된 범위를 초월하여 전 세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선교적인 전망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칼빈의 경우는 어거스틴과는 또 다른 상황이었다. 16세기는 당시 전 유럽을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 속에서 개신교회가 막 출범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칼빈보다 좌측에는 보다 급진적인 재세례파들의 종교개혁 운동이 맹렬하게 도전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칼빈은 카톨릭과 급진적인 재세례파가 형성해 놓은 광범위한 16세기의 신학적 스펙트럼 속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도 구별되고, 또한 급진적인 재세례파들의 교회와도 차별되는 자신의 교회의 정체성을 신학적으로 정립해 가면서, 동시에 그 자신의 교회의 부흥을 도모해야만 했다. 이처럼 칼빈은 16세기 유럽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개혁 교회 부흥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추진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칼빈의 강조점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 교회는 성령에 의한 중생의 사역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종말의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처럼, 교회의 성장 혹은 확산에 대한 관점도,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신학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해석될 때 보다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21세기 한국과 서양의 교회들에 대하여, 미래의 교회의 부흥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각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신학적 과제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깊은 해석이 그 바탕에 놓여져야 할 것이다. 서양의 교회(Western Churches)는 서양의 교회대로, 또한 한국과 같은 비 서양권의 교회들(non-Western Churches)은 그들대로, 자신들의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토대를 먼저 개혁주의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후에, 그 위에서 미래의 교회 부흥을 전망해야 할 것이다.

(\*)

## Bibliograph

### I. 어거스틴과 칼빈의 원자료 (Original Sources)

#### 1. 어거스틴 (라틴본)

- (1) *Corpus scriptorum ecclesiasticorum latinorum* (=CSEL). Vienna: Academia Litterarum Caesarae Vindobonensis, 1866 ff.
- (2)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CCL). Turnholti, Typographi Brepols, 1953 ff.
- (3) *Patrologia Latina Cursus Completus* (=PL). ed. J. P. Migne. 221 vols. Paris: Vives, 1844-55.

#### 2. 어거스틴 (영어본)

- A Select Library of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ed. Philip Schaff and Henry Wace. First Series, vol 1-8. New York: Christian Literature Co., 1836-1900. Reprinted.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99.

#### 3. 칼빈 (라틴본)

-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s. G. Baum, E. Cunitz and E. Reuss. 59 vols. Corpus Reformatorum 29-88. Brunswick and Berlin, 1863-1900.

#### 4. 칼빈 (영어본)

- (1)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ed. J.T. McNeill. trans. F.L. Battl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20-21. 2 vol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2) *Commentaries of John Calvin*. 46 vols.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4-55; repr.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98.

## II. 문헌목록

- Augustine. *De Civitate Dei (DCD.)* (= *City of God*). (ed.) B. Dombart and A. Kalb. (= *CCL* 47-48). Turnhout: Brepols, 1955.
- \_\_\_\_\_. *Epistulae*. (= *CSEL* 34).
- \_\_\_\_\_. *Of the Morals of the Catholic Church*. (= *PL* 32).
- \_\_\_\_\_. *On Baptism against the Donatists*. (= *CSEL* 51).
- \_\_\_\_\_. *On Patience*. (= *CSEL* 41. 669).
- \_\_\_\_\_. *On the Gospel of St. John. Tractate*. (= *CCL* 36. 498-499).
- \_\_\_\_\_. *On the Psalms*. (= *CCL* 38-39. = *CCL* 40).
- \_\_\_\_\_.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an*. (= *CSEL* 25.)
- \_\_\_\_\_. *Sermons on New Testament Lessons*. (= *Sermon* 88. = *PL* 38).
- \_\_\_\_\_. *The Letters of Petilian, The Donatist*. (= *CSEL* 52).
- Brown, P. *Augustine of Hippo*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2000).
- Calvin.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 *CO* 45).
- \_\_\_\_\_. *Commentary on Colossians*. (= *CO* 52).
- \_\_\_\_\_. *Commentary on the Prophet Isaiah*. (= *CO* 36).
- \_\_\_\_\_. *Commentary on Thessalonians*. (= *CO* 52).
- \_\_\_\_\_. *Institutes*. (= *CO* 2).

- Fitzgerald, A.D. *Augustine through the Ages*.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 Frend, W.H.C. "Donatus 'paene totam Africam decept.' How?"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1997) vol. 43.
- Frend, W.H.C. *The Donatist Church: A Movement of Protest in Roman North Af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2/1985.
- Greef, W. *The Writings of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 Markus, R.A. *Saeculum: History and society in the Theology of St. August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 Parker, T.H.L.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Edinburgh: T&T Clark, 1993.
- Selderhuis, H. *God in het midden: Calvijns theologie van de Psalmen*. Kampen: Kok, 2000.
- 안인섭. "로마서 13:1-7 해석에 나타난 어거스틴과 칼빈의 교회와 국가 사상." 『신학지남』 제71권 4집 (2004년 겨울호), 162-189.
- 안인섭. "칼빈과 어거스틴: 그 비교 연구의 한 방법론과 실재." 『칼빈 연구』 제2집 (2005), 7-28.